

소액·파산 전담 변호인단 뜬다

서류 작성에서 법정 출석까지 대신 처리

광주지방변호사회 운영

광주·전남지역 법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 또는 개인파산·회생사건 전담 변호인단이 결성돼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법률서비스 차원에서 소액 또는 개인파산·회생 사건을 전담 처리할 변호인단을 이달 내 구성,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전담 변호인단은 변호사회 소속 광주·전남지역 변호사 중 희망자를 중심으로 30~50명 규모로 구성, 순번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비와 인지대·송달료 등은 본

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선임료는 2천만원 이하 소액 사건의 경우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며, 500만~1천만원은 건당 50만원 미만으로 처리해줄기로 했다.

개인파산·회생사건은 조판간 위원회를 구성한 뒤 구체적인 상담 인력과 선임료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변호사들은 전담 변호인단에 운영될 경우 적게는 월 20~30건, 많게는 50~60건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서류 작성에서 법정 출석까지 대신 처리키로 해 소송 절차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에게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예비군 훈련 이젠 '實戰' 공고생 1만명 취업 보장

서바이벌 게임·실 포탄 사격 등 아전위주 훈련

광주·전남 5일부터 28만명 대상 일제히 시작

'이젠 예비군 훈련도 실전 형태의 서바이벌 게임으로'

올해 광주·전남지역 예비군 훈련이 오는 5일부터 연인원 28만여명을 대상으로 일제히 시작되고 첫 여성 예비군 부대가 창설된다.

향토사단인 육군 제31사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작되는 예비군 훈련은 그동안 설명위주의 단순한 강의식 훈련에서 벗어나 '서바이벌 게임'과 같은 실기 및 실습 위주의 상황조치식 훈련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31사단은 예비군 교장을 확장하는 한편 서바이벌 장비 450정과 방탄헬멧 500여개를 추가로 구비, 과학화된 실전 훈련을 통해 예비군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계획이다.

올해부터 입소 시간도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로 1시간 늦춰지는 대신, 오후 5시까지였던 훈련 시간이 오후 6시로 변경된다. 교통비는 1천800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기존 주소지에 서만 이뤄졌던 훈련을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와 지역을 정할 수 있게 된다.

평일 훈련이 힘든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을 위해 휴일 예비군 훈련도 각 지역 대대별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오는 4월 초에는 광주군과 순천시에 첫 여성 예비군 부대가 창설되며, 포병대대에 입소한 예비군들은 실 포탄 사격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이와 함께 그동안 불만이 제기됐던 ▲맛있는 식사 ▲불편한 교통 ▲편의 시설 부족 등 '예비군 3대 불편사항'도 대폭 개선됐다.

우선 31사단은 맛있는 식사를 위해 현지 업체 실사를 통해 도시락 납품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 위생점검 등을 정례화해 청결하고 위생적인 도시락을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와 협조해 예비군 훈련장 안내 도로 표지관 5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대중교통 이용 예비군을 위해 군내 버스 추가 배차와 배차 시간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사단 동원참모 윤진영 중령은 "그동안 예비군 훈련의 성과를 높이고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키 위해 부대에 서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2010년까지 맞춤형 교육

정부 인적자원 개발 회의

정부가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산업현장과 연계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2010년까지 1만명의 취업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12개 정부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현장의 기능직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했던 '기업-공공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공업고교와 중소기업이 협약을 체결해 졸업 후 취업을 전제로 중소기업의 직무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1천160명의 학생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 1천500명(50개교), 내년부터 2010년까지 7천300명(240개교)을 추가로 참여시켜 총 1만명의 공고생을 맞춤형 인력으로 육성에 전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 추진을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에 교육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고등교육국제화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내의 대학생 취업률 향상을 목표로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학점의 2분의 1까지로 제한한 현행 고등교육법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대학 입학자격 인정 기준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노동부-민노총 대화 채널 복원

노동부와 민주노총은 2일 노사관계 로드맵 임박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작년 9월 이후 단절된 양측간 대화 채널을 재구축키로 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과 이석형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만나 양측간 대화채널 재구축 등 노동계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회동에서 "작년 9월 로드맵에 대한 노사정 합의과정

에서 민주노총을 배제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끝까지 민주노총과 협의해야 했다"라고 지적했고 이 장관은 "일부 오해가 있었다. 대화를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해 대화 재개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양측은 정책인안 초기단계부터 진지하게 대화하고 논의하기로 뜻을 모으고 노동부 차관과 민주노총 사무총장간 상시적 대화장구를 운영키로 했다.

/연합뉴스



"새출발 축하합니다" 2일 열린 광주 동강대학(학장 이주석) 입학식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 재학생들이 소방관 캐릭터를 하고 나와 신입생들을 맞이하고 있다. /위정라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전남 곳곳 대보름 잔치

정월 대보름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300여곳에서 당산제·달집태우기 등 전통 제례의식과 율놀이·농악놀이 등 다양한 세시풍속 행사가 열린다.

광주시 광산구 쌍암공원에선 4일 오전 가족 연날리기 대회가 열리고, 오후엔 첨단지구 도로 및 아파트단지에서 길놀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북구 호수생태공원에선 연날리기와 투호·제기차기 등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 어우러진다.

3일 오후 11시부터는 광주시 북구 충효동 충효마을 당산나무제가 열리는 마을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한다.

목포에서는 4일까지 달집태우기·율놀이·제기차기 등이 목포자연사박물관 앞에서 열리고 목포문화예술회 관광장에서 투호·율놀이 등이, 옹해

동 일원에서 지신밟기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4. 5일 여수 거북선공원에서는 '동(洞) 겨루기 풍물놀이 한마당'과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한마당'이 각각 열려 농악·민요 등 국악한마당과 연날리기·투호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 가 재현될 계획이다.

광양지역에서는 3일 서천체육공원에 있어 광양문화원 주관으로 '전래 세시풍속놀이'를 열어 율놀이와 경연, 달집태우기 등을 선보인다.

담양에서는 3일 오후 2시부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숲으로 선정된 관방제림(천연기념물 제366호)에서 가장 봄꽃이 풍채가 좋은 나무를 선택해 '대보름 관방제림 당산제' 행사를 갖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식목절 광주·전남 묘목값 '쑥쑥'

갓나무·매실 묘목 4,000원선... 작년보다 14% 올라

식목절이 되면서 묘목 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일 산림조합중앙회 전남도지회에 따르면 본격적인 나무심기철에 접어들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각종 묘목의 가격이 전년보다 10%정도 올랐다.

유실수인 (꿩)갓나무와 매실 묘목은 주당 4천원으로 전년보다 14.2%인 500원이 올랐다. 대추 묘목도 500원이 올라 4천500원함에 거래되고 있다.

조경·정원수로는 금목서와 은목서, 철쭉, 천리향 등이 모두 10%가량 인상됐다. 이들 수종은 수고·수형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 금·은목서는 수고 1m짜리가 1만~1만5천원, 2m짜리가 3만원이다.

철쭉은 30cmX30cmX30cm(가로X세로X높이)짜리가 전년보다 200원이 오른 1천300원에 팔리고 있다. 천리향도 묘목은 300원이 올라 3천원, 수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고 1m짜리는 3천원이 오른 3만원, 1m이상~2m는 5천원이 올라 5만원에 유통되고 있으며 장미(가지 3개짜리)도 10%오른 가격인 2천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단풍나무는 2만5천원(지름 3cm), 6만원(지름 5cm) 등으로 전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2호짜리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매년 가격이 올랐던 석류나무는 올해는 더이상 오르지 않고 전년과 같은 5천~1만1천원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계 황제' 이원조씨 별세

이원조 전 국회의원이 2일 오전 2시20분께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뇌출혈로 별세했다. 향년 74세.

그는 관치금융 시절이던 1986년 은행감독원장에 취임했으며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던 1988년부터 1993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민정·민자당의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막강한 정치자금 동원력을 과시하면서 '금융계의 황제'로 불렸다.

유족으로 부인 홍순례씨와 동창, 동렬 두 아들이 있다. 발인은 4일 오전 8시. 묘소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의료원(02)3410-3151. /연합뉴스

원로코미디언 이기철씨 별세

원로 코미디언 이기철씨가 2일 식도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60세.

목포출신인 고인은 '웃으면 복이와요' '일요일 밤의 대행진' 등 70~80년대 MBC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익살스러운 표정 연기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은퇴 후 90년대 초반 캐나다로 이민, 현지에서 식당 등의 사업을 펼쳤다.

묘소는 서울 이대 목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장례는 MBC코미디언실장으로 치러진다. 유족으로 부인과 2남이 있다. 발인은 4일 오전 9시.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생활 게시판

40분 순천시 탑웨딩홀 1층 다이아몬드홀.

부음

▲오석교(전 광주시 광산구의회 의장)씨 별세 종손(나주 금성중교사)·종원·종일·종현(개인사업)씨 부친상=발인 3일(토) 귀빈 장례식장. 943-4803

▲황귀덕씨 별세 김성태·만태·일순·길순씨 모친상=발인 4일(일) 송정장례식장, 941-4400

화측

▲정원기씨 차남 지원군 김한석(광주 개발화물조합 이사장)씨 장녀 남주양=3일(토) 오후 1시30분 리더스클럽 웨딩홀 2층 컨벤션홀.

▲이홍재(전남도의원)씨 장남 병태군 흥대영(서광주세무서)씨 차녀 은희양=11일(일) 오후 1시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 (062) 220-0524

☎ (062) 227-9800

☎ (062) 227-9500

인부구급

복지요양서비스

☎ 010-9604-7999

☎ 011-271-4500

분할합병공고

(주)에스이치글로벌(주)

대표이사 최희주

고시

농어촌진흥사업 제8호 제12호 및 동등 시행령 제9호 제12호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함함을 제2호 및 동등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자 및 관리인은 기간내 신고 또는 이장하지가 마라

희소식

기행주부

기행주부

기행주부

수강료 환급

출석률 80%이상 수업료의 50%를 재환급한다

☎고용보험 가입 무관☎

국가지·지방직 시험대비

www.mdgosi.co.kr

9급공무원 전직렬 문제풀이

2007 공무원 대거채용 교정직특채

산행안내

3월 4일(일)

▲광주지대(서)에서 유실산악회

전국 최강의 강사진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유명 출판사 저자 직강☎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공무원

2007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한빛공무원학원

개강 3월 5일

복수정 진너른 전남대 후문 앞 ☎234-0234